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어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봄빛이 짙어가는 사회주의혁명에서 봄철영농준비가 한창에 벌어지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오 오목배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에 이 땅위에 열실 한마음과 농민들마다 애국의 땅을 바치려는 농업근로자들도모두에게는 뜻깊은 시일이 간직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3월의 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시하신 토지개혁의 해태도 땅의 주인이 된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울고웃으며 온 나라의 농민들과 인민들이 환호성을 터치던 력사의 시연이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어 우리 농민들을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그대들과 품오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불타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어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맞은 첫봄은 창으로 환호되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실현하시어 첫 민중개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시어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기때문이었다.

해방된 조국을 개척하시어 땅을 창건하시고 북조선림업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어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정권의 멧밧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선진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어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현명성 당과 국가의 중요한 조지를 휘하할 때면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날에도 토지개혁을 우리 농민들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실시하시어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였다.

형제산악의 한 농가에 들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곳의 토지실태와 지주들의 착취행위 그리고 농민 한사람도 토지관리능력과 3.7 제투쟁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리고는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제땅이 없어 애써 지은 곡식을 지주들에게 다 빼앗기고 못살았는데 이제는 제땅을 가지고 잘살아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지주들이 토지개혁을 반대하여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경비를 강화하며 농민들을 농민조합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3.7 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등 토지개혁준비를 위한 지침도 밝혀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고장을 찾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주게 되는 땅을 받고 농사를 밟아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하시며 농민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대를 굳건히 세워주시였다. 이 고장에 서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34(194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구를 나가시어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어 그들의 말을 귀중히 하시며 토지문제를 농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바치시였다.

식구는 맺이며 지주의 땅은 얼마나 부치는가, 소출은 얼마나 나는데 소작료는 얼마나 바치는가, 일하는 사람과 밭인데 땅을 얼마나 가지면 생활할수 있는가, 농촌의 장정로력 한사람이 어느 정도의 땅을 다루수 있는가, 땅을 주면 어떻게 부지겠는가, ...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물수대상과 물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 등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다스급 확정하시였다.

그에 토대 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였다.

《주제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말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토지개혁을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하도록 하시였으며 물수한 땅을 농민들의 소유로 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그 특창성과 현명성으로 하여 세월의 언덕을 넘어 빛을 뿌리고있다.

토지개혁, 이는 우리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었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영원히 청산한 력사적사변이었다.

그것은 항일의 나날 유격근거지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시고 숙영지의 깊은 밤 우물방가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토지개혁의 구상을 환상처럼 새겨주시던 그때처럼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인 토지문제해결에 기용이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어 땅에 대한 세기적 속망을 풀어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이 하고 고마와 부끄럼이 되며 웃으며 온 나라의 농민들과 인민들이 터친 그날의 환호성이 오늘날도 메아리쳐온다.

그 나날 대동군 시측면 성문리(당시 도) 찾으면서 이곳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력사를 다 들어주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자주적과 절대적개입을 통해 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분들에게 드리고 하시며 문에 친히 지주집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은 박장남농민의 이름을 쓰시고 달아주시였다. 그가 부여받은 땅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표달까지 세워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체취와 높은 뜻이 승메인 그날의 문과와 표모든 우리 농민들근로자와 인민의 가슴속에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중요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이 된 우리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그대로 담아 올려던 그날의 노래가 봄빛이 짙어가는 사회주의혁명에 오늘날도 울린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뿌리썩어 버린 땅이 정근된 주인 땅 에루와 데루와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 가세 ...

노래는 그대로 해방후 선창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어 농민들의 세기적 념원을 풀어주시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이며 그 은덕이 기어오 보답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세대와 년대를 이어 이 땅위에 울려지고 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신 그날과 더불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한평생 농촌과제 해결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제의 대강인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내 놓으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과 농업지도체제를 세워주시였으며 토지정리를 도제적으로 마련하신 주제농법도 안겨주시어 우리 수령님 이제.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더욱 빛을 뿌리었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자연계 조사업이며 만민대계의 교육사업인 토지정리를 단행하시어 토지를 진정한 사회주의대지답게 변모시켜 농촌 문제해결의 최후한 미배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이시다.

은 나라의 토지정리투쟁을 찾았고 찾으신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땅이 펼친 토지정리사업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시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수령님의 영도업적을 빛내이며 토지의 면모와 구조를 개

변시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업이라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력적인 령도로 토지정리의 세기적업무를 실현하시어 후손민대가 복락을 누릴 사회주의대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르며 우리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려는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다시금 절감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땅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가꾸어 물려주시어 제후들의 계승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품을 들여 다스리신 김일성민족의 삶의 영원한 터전이다.

지난 2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발표하신 50돐을 맞으며 우리 조국역사에서 처음으로 전국농업부문본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어 온 나라 농업근로자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를 육성목으로 청취하고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격정은 실로 뜨거웠었다.

또 한분은 결혼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와 인민들은 세세년년 오목배과 주렁진 사회주의농촌의 찬란한 태양을 확인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강고히 바치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농장별에 애국의 땅과 마음을 다 바치려는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와 청년군인의 투쟁으로 이 땅위에 강성국가의 새모든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한평생 포전길 걸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그 어디에 가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여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제 62(1973)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군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신였다. 농민들 농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농장주인들의 기쁨과 감격은 컸다.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은데 대하여 거듭 치하하시면서 벼가 넘어진 포전이 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작업반마다 벼가 조금씩 넘어진 포전들이 있었으나 그 원인을 똑똑히 몰라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후미지키는 농장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소비를 너무 많이 쳤기때문에 벼가 넘어졌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치주시였다.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그해 2월에 농장에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일이 떠올랐다.

이 농장은 부침땅이 대부분인 진흥면에서 매우 척박하였고 그 흩날리니 소출이 적어 농민들의 생활이 편하지 못하였다.

그러하여 우리 수령님의 사업수행에 가장 못사는 농장의 하나로 등록되어있었다.

저녁식사시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못지을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밭어주셨으니 농사를 분배있게 지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대의 거름운반용자동차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현지지도관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속에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이 이룩되었다. 농민들 가을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농사를 더욱 추켜세울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르는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로써 농장의 풍년작황을 두고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시어 농장원들은 농장원들을 부르시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자신서 한턱 내겠다시며 무엇인가 더 요구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덕분으로 농사를 잘 지은데 대하여 많이 잊지 않게 된 농장원들이 감사를 드러야 할터인데 아직 또 다 무슨 사람이 있었는듯 배풀어주시는 은정만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우리르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목메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이 필요하다는것을 수첩에 하나하나 적소비를 너무 많이 쳤기때문에 벼가 넘어졌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치주시였다.

농장원들의 제기를 받아쓰는 명세는 아버지수령님의 수첩에 차고넘쳐 수행한 일군까지 받아쓰지 않았던 안티였다.

다음해농사를 분배있게 지어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다는 그들의 맹세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일을 잘하면 더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신 후 우리 수령님께서는 떠나시였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요구다 훨씬 더 많은것을 보내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거름거름 배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은정속에 농장은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 흥하는 농장으로 되였다.

인민들의 먹거 문제를 해결하시어 한평생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는 이 땅 그 어디에나 어려웠다.

그 작록마다에 새겨진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 인민은 대현지도관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속에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본사기자 한 영 민



지주집머슴으로 살던 농민에게 땅과 집을 주시고 몸소 《박장반》이라는 툰까지 써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못하는 참판자들 -성문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적음

연안군 도남 리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당보에 실리려는 기사들을 가지고 포전에 나가 독보와 해설모임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며 당보에 중요기사가 실릴 때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읽어보도록 사업을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상전의 력사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의 성스러운 기발을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긍지높은 혁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담고있고 양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는 것이 혁명이다. 사상을 떠난 혁명은 라미판이 없는 배와 같다. 이런 라미판이 사상은 혁명의 출발적기초이고 사상을 놓치지 않는 것은 곧 혁명의 밑뿌리를 잃는 것이나 같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의 강자들을 타도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그 어느 나,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진시킨 혁명은 없다.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중시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상전의 력사는 조선혁명의 력사와 더불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사상으로 단결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해온 력사이다. 혁명의 불태성과 전도는 단결에 있으며 단결은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혁명의 령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사상적단결, 조직적단결로 뭉침없이 강화발전되게 된것은 사상을 틀어쥐고 위대한 사상전으로 혁명의 전환적극면을 열어온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

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동원시킨 정치적 사변이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진군에서 우리 당이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되고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불멸의 혁명투력, 일심단결된 전투대오가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인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으로 전진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을 지고있고 굳게 뭉친 불멸의 일심단결과 더불어 우리 사상전의 력사는 끝없이 흐를것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사상을 최강의 무기로 틀어쥐고 제국주의의 강자들을 대결에서 백전백승을 펼친 력사이다.

우리 인민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세계(세계)를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버리시어 조선혁명의 사상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있다. 우리가 혁명의 년대들마다 제국주의련합체력과 맞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괴립압살책동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적로를 열어놓을수 있는것도 정치사상전진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상전의 위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되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심화발전되어온 사상전의 전승은 온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대결에서 백승의 보검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적인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력한 총대와 운명을 같이하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물거품이 될것이며 우리는 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련전전승을 이룩해나갈것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총동원하시어 땅위에 강성번영의 거창한 시대를 펼쳐서 위대한 전진의 력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사상으로 변혁의 기쁨을 마련하고 사상의 위력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운 기적창조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새 조국건설의 터전을 닦았고 전후 모든것들이 파괴된 제대미우에서 천리마고조의 새한 불길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도 창조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상전의 드세한 열풍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았고 그처럼 어려웠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혁명적군정진으로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동원하여 풀어나가고계신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전진으로 사상의 포문을 일깨히 울리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미탐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의 리상과 꿈은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있다.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진 조선혁명의 사상전의 력사는 현재의 위업을 높이 모시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우 철 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 농업부문본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위에 활짝 꽃피우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지금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체제발포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국농업부문 본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로작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체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시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체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촌건설은 큰 몫을 차지한다. 농업의 발전을 떠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지난해 남포총화학련합기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농업건설의 범기창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 대한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고 축

산업과 온실남새농사, 버섯재배의 밝은 전망도 열어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지금 우리의 강성국가건설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시대와 혁명전선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백두산대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쳐나가자면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올해에 농업부문이 혁신의 봉화봉을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태성을 힘있게 피시하고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드심없는 의지가 담겨진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올해에 농업부문이 혁신의 봉화봉을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태성을 힘있게 피시하고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드심없는 의지가 담겨진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올해에 농업부문이 혁신의 봉화봉을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태성을 힘있게 피시하고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드심없는 의지가 담겨진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민대계이며 농촌건설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데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근본방도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 있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어으로써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가르치시였다.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올해에 농업부문이 혁신의 봉화봉을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태성을 힘있게 피시하고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드심없는 의지가 담겨진 강령적지침이다.

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데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근본방도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 있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어으로써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가르치시였다.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올해에 농업부문이 혁신의 봉화봉을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태성을 힘있게 피시하고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드심없는 의지가 담겨진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언제나 농업생산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사회주의농촌체제관찰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다. 농촌에서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져 농업근로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농촌혁명가들로 자라나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의 땅답게 일심되게 된것은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농업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농촌건설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최근 불리한 기후후조건과 환경중에서도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 농촌을 건국하고 농민에게없이 과학기술을 단시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합리적인 영농방법을 제때에 받아들이는것을 알수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시키는것은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농업생산의 주인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자고 하여도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고 하여도 농업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해나간다. 농업생산에서의 성과여부는 결정적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리원시 미풍형동농장 본조장 김영순동무는 근 20년세월 본조원들과 고투를 함께 하면서 우리 당의 농정정책을 깊이 해설해주고 혁신적정기정신을 대동군의 정신력을 불태이고 혁신의 고리형순환생체제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농사학을 학기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현히 밝혀주시였다.

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고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애국애민의 립장이 뚜렷이 담겨져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정치사상강국, 강성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족하지가 아무리 제동부문에 대한 당직지도에 강령한데도 배심있게 해나갈수 마음대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활로 체현하여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소회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한목숨바쳐 지켜갈 각오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농사문제에 단순한 경제성공적문제나 아니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의 조국 건설한 수호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단산시편을 이겨내며 땅을 총창하게 받들어서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뭇을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는 사상들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회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 영원히 잊지 말자

귀중한 이 땅에 풍요한 가을을

연백벌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력사적인 토지개혁명령발포 68년이 되는 날이 왔다. 세기적숙망이 실현된 감격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기쁨의 옥도로 가꾸어가며 우리 농민들이 기쁨속에 부르면 밭갈이노래가 오늘 연백벌에서도 높이 울리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 땅에 풍년처럼 넘치게 하려는 벌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신념의 맹세가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발전 50년이라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셨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연백벌에 풍년가을을 펼쳐놓을 비상한 각오를 안고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분발해나섰다.

정조부터 땅의 주인된 자국을 안고 펼쳐나 농사차비를 위한 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온 벌이 새차게 들끓었다.

연안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군일꾼들은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이 땅을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전변시켜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귀중한 이 땅을 기쁨지게 경구는데서 토지개혁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이들은 집중은 토지개혁을 찾아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대중을 불러일으켜 맹숙지개량전투를 내밀었다.

강추위속에서 땀을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진행된 맹숙지개량전투의 나날에 일꾼들과 농장원들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해준 것은 전해가며 보답해야 할 크나큰 은덕이건만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 방도까지 가르쳐 주시느라 연백벌을 찾고찾으며 포전길을 위임없이 걸으셨던 어버이수령님.

주제 82(1993)년 8월의 무더운 날 우리 수령님께서 새겨가신 로고의 자욱들을 눈물겹게 따듬으며 오련, 청화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많은 면적의 맹숙지를 성과적으로

겨칩니다.》...

문득 연제인이 열두삼천리벌을 찾았을 때 나이가 많다고 어찌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는가 하면서 농사일을 극성스레 도와주던 한 로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어 땅이 없는 설음이 얼마나 큰것인지 지내들이 어떻게

향하였다.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땅의 주인된 본분을 다할 기세드높이 펼쳐나선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올해의 첫 보름동안에 군적으로 900여정보의 맹숙지가 개량되었다. 2월에 들어와 전투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성과가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군적으로 맹숙지개량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

연백벌에서 농사를 잘 짓도록 온갖 사방을 다 배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안시고 기계화의 위력을 보다 높이 떨칠수 있게 토지정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토지정리로 천지개벽된 이 땅에 풍년로직가리를 높이 쌓기 위해 배전군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차비를 전례없는 속도로 다그쳤다.

군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니란을 캐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청년들이 그 투쟁의 앞장에 섰다. 니란매장지로 달려간 수백명의 청년들은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전투를 벌리었다. 조건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한없이 소중한 이 땅을 피와 땀을 바쳐 지키고 가꾸어 후대에까지 물려

헤방후 첫 봄날에 우리 농민들이 세 땅에 마음껏 뿌린 첫 씨앗, 그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씨앗이었다. 그 씨앗과 더불어 김일성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쌀로써 보급할 우리 농민들의 총정리의 마음은 울토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진정 그것은 예국의 씨앗이었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 땅의 주인,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이 된 궁지에 넘쳐 첫 씨앗을 뿌려가고있으니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이 어찌 흥분으로 높이지 않을수 있랴.

하기에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 봄의 첫 씨앗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만풍년을 안아오는것으로써 보답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담아 뿌려가고있는것이라.

그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씨앗들을 나는 무심히 볼수 없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애국의 넓이 갖는 사회주의대지에 우리의 미더운 농업근로자들이 뿌려가는 애국의 씨앗들이 울토고 자라 보답의 열매로 주렁주렁 풍년가을의 환희로써 풍치가 눈부러 아득히 펼쳐져 나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본사기자 장은영

준 어제날의 농민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할 열의로 가슴끓이며 앞을 다투어 전투장에 뛰어들었다. 청년들은 맹장 추위속에서도 웃음을 벗어제끼고 함마를 기운차게 휘두르며 니란을 깬다. 함마자루를 툄 손이 부르렀지만 일손을 놓지 않고 전투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간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한주일 동안에 1만의 니란이 마련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일꾼들은 캐낸 니란을 빨리 농장들에 실어보내기 위해 물론 기계와 기구보장을 비롯한 운반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추정, 류현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들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니란이 운반됨으로써 농사차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이 땅이 귀중할수록 바치는 사랑이 뜨거워야 한다. 이것을 명심한 청년군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떨쳐나섰다.

군일꾼들은 지난해농경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알곡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토지개혁을 잘하는 데서 찾았다. 그러자면 더 많은

소식회를 생산해내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던 이들은 군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소식회생산을 높이는데 주목을 돌리었다. 군에는 초무연탄이 매장되어있다. 일꾼들은 초무연탄으로 소식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대중의 지혜를 발동시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소식회생산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들에서는 초무연탄매장지가가이에 로를을 꾸려놓고 지난해보다 소식회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소식회생산이자 알곡증산이라고 하면서 일반을 통틀어 크게 벌려 벌일 실적을 올리었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식회생산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결과 토지개혁을 보다 질적으로 하는것은 물론 강냉이영양단지 재료준비도 더 잘할수 있게 되었다.

뜻깊은 올해농사를 본래있게 지을 열의드높이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벌안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증산으로 땅을 받들고 우리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가기 위해 불철영농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한그레벨이 주인된 자각이고

래 천 군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태권군 한드레벨의 농촌들에서 귀중한 이 땅을 기쁨지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

지고있다. 땅의 주인, 농사의 주인된 자각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한드레벨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는 토지개혁명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더욱 높아져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군 의 논들중에는 물을 대면 거름, 비료성분이 많이 빠져버리는 포전들이 있었다. 알곡증산의 예비의 하나는 이 모래 땅을 개량하는데 있었다. 군일꾼들은 이를 위해 농장들에 내려가 흙갈이를 할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함께 낱자별, 포전별계획을 정확히 세웠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정보당 1000백의 진흙을 실어내어 수백점의 모래땅을 개량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400여정보의 논에 흙갈이를 흙갈이전에서는 은흙형 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남다른 모범을 보였었다.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하자고 호소하는 일꾼들의 뒤를 작업반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따라나섰다. 진흙을 더 두들겨 깔아 땅을 개량하는 여기에 올해농사를 잘 지어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

내어가는 길이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이들은 그 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다른 농장들의 농장원들도 흙갈이를 한것만큼 정보당 수확고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언땅을 깨내며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었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짧은 기간에 400여정보의 논흙갈이를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서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냈고있다. 특히 작업반기술원들을 비롯한 농장의 기술일꾼들이 원료혼합과 온도보장 등 흙보산비료생산의 공정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원천협동농장에서도 생물활성비비더미우에 흙보산비료원료를 덧쌓는 방법을 리용하여 전혀 원료를 쓰지 않았으면서 흙보산비료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농장들에서는 흙보산비료의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맞게 보관대책을 잘 세우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욱

후보 산 비 료 를 더 많이

은 낱조조건에서도 흙보산비료 생산을 중단없이 내일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또한 농장들에서 연료를 쓰지 않는 흙보산비료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들도록 하였다.

래하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귀중한 이 땅을 기쁨지우기 가꾸는것이 농사군의 본분이 라는 자각을 안고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자면 부식토와 전기를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

본사기자 김성철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정주원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일 목표

대 동 군 에 서

—북반은 대지에 발돋소리 더 높이 올라자. 대동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이런 드높은 결의를 가슴을 울리며 농기계와 농기구수리 정비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지개혁의 새 역사를 펼쳐진 땅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 높고 울리게 하려는 그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발동발전기의 동음은 쉬임없이 울리고있다.

자체로 생산하는 전기로 기계설비들을 돌려 갖가지 농기계부속품들을 가공하는 기능공들의 얼굴에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트랙토르를 수리하는 수리공들의 얼굴에도 북반은 대지에 기계화의 동음 더 높이 울려서는 드높은 결의가 넘쳐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운, 순화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에서 같이같이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는 보수자들을 만들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없던것도 있고 부족한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농장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보수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 있다.

상사, 고산, 오금, 팔청, 학수협동농장들에서도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뜻깊은 올해 기계화의 위력 떨칠 일념으로 분발해나선 기술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른 한

의 효를을 높이 도록 기술자들과 기술자들이 적은 대용연료를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합치고있다.

천지개혁의 새 역사를 펼쳐진 땅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 높고 울리게 하려는 그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발동발전기의 동음은 쉬임없이 울리고있다.

자체로 생산하는 전기로 기계설비들을 돌려 갖가지 농기계부속품들을 가공하는 기능공들의 얼굴에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트랙토르를 수리하는 수리공들의 얼굴에도 북반은 대지에 기계화의 동음 더 높이 울려서는 드높은 결의가 넘쳐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운, 순화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에서 같이같이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는 보수자들을 만들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없던것도 있고 부족한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농장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보수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 있다.

상사, 고산, 오금, 팔청, 학수협동농장들에서도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뜻깊은 올해 기계화의 위력 떨칠 일념으로 분발해나선 기술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른 한

모 판 준 비 를 착 실 히

염 주 군 남 압 협 동 농 장 에 서

보내주신 서한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시면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화신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제 5, 6 작업반들이 앞장서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알곡

대의 모내는기계를 개조해도 설천태가 생기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돌이켜보면 해방전 대동군 농민들은 손바닥만 한 제 땅 한페가 없이 대대로 소작살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가계를 꾸려 농사를 짓고도 가을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했던 그들에게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시어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는 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나 빛나랴.

기계화의 동음 높이 울리도록 울망줄망망하던 폐기농발들을

전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농장원들은 바람막이바자치기와 두둑짓기 등을 한공정씩 착실히 수행하고있다.

제 2, 4 작업반들에서는 농장

대규모의 포전으로 전변시켜 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고 천지개벽된 땅에 생명이 가 흘러넘치도록 하여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로고 가 뜨겁게 언거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트랙토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 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기계화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것으로써 보답하려는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농기계와 중소농기구수리정비가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정주원



사회주의대지의 위대한 전변의 역사 여러리벌은 오늘도 래일도 길이 전하리

본사기자 김종훈 씌움

경제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질 불라는 열의

이런 관점과 일본새가 중요하다

덕천지구관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련관부문의 일군들 앞에서 도와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작업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매달 석탄생산목표를 향하여 그들은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하여주는 기쁨에 젖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걸쳐 100대의 대형화물자동차 대고조전투쟁을 석탄을 집중수송해 주었다. 하여 이 지역의 긴장한 철도수송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고 대동력기지의 전력생산자들과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도 동계급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형부,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판에 펼쳐 나신 이 일군들과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련합기업소의 탄광들과 열매장들은 새해 첫 초부터 증산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있다.

일군들은 드세한 공격적인 1선에 전투의지를 정하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며 대개의 일군들이 내달리려 하고, 탄부들은 스스로 하루씩 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투목, 세목의 일감을 맡아 석탄증산의

덕천지구관합기업소에서는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었다. 결과 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어 련합기업소의 지관장들은 석탄산이 높을수록 쌓아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석탄수송을 위한 화차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대고조전투쟁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수 없었다. 이것은 현행생산에 위한 운반체계의 만가동보장에 지장을 주고 굴지의 대동력기지에서의 전력생산과 화학공업기지에서 주제비료생산에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련합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지퍼올리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수송문제도 철도운수부문에 한 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내일내일을 따진다면 올해전투에서 보다는 성과를 거둘수 없게 된다.

이런 자각을 안은 책임일군들은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벌떡나섰다. 있는 가능성과 에비를 동원하여 철도운수부문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행생산에 동원된 자동차들을 섣 매내어 석탄집중수송을 조직

기까지 직접 수송해주었다. 붉은기를 켈터며 달리는 자동차행렬이 지나가는 곳마다에서 이 지역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과 련관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덕천의 탄부들처럼 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릴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뜨겁게 환승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동차들을 타고 현지에 도착하여 전력생산자들과 화학공업기지도 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며 서로 어깨를 걸고 협력혁신의 한걸음 내달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에 대한 반응은 대단하였고 련관단위에서의 보다 큰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이것 일군들과 탄부들의 진정에 고무된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은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며 석탄수송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수송 련합기업소에서는 이례한방도의 생산상태를 주제로 삼아 장악한데 기초하여 철도운수부문의 긴밀한 련계망에 기반한 화차들의 배차조치를 능동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화차머무름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상하차설비에 대한 정비보완을 철도운수부문에 도맡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관장들은 벨은 일인일과 구배가 심한 철길들의 강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요하게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 높이

◇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힘찬 발전을 내걸고있다. 각기 탄부들에서는 철도운수부문의 긴밀한 련계망에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제때에 원만히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동력기지의 로동계급은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질 좋은 전기를 탄광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물심양면의 힘있는 지원에 고무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석탄집중수송행렬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기 위한 전진선에 함께 서겠다는 자각으로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의 련대적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증산의 지름길이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활황화될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다.》**

덕천지구관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광길동무의 목소리에 응하여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판에 펼쳐 나신 이 일군들과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련합기업소의 탄광들과 열매장들은 새해 첫 초부터 증산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있다.

◇ 련관부, 련관단위를 위한 일, 이것은 곧 자기 단위를 위한 일이다. 위대한 련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산수단인 사회적으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현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이 팽방 쏟아져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공업부문에서 석탄전선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전기는 철도의 정상운행을 위한 기본조건인 하나이며 철도운수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는것은 전력증산의 동력을 더 높이 올릴수 있게 하여주는 물질적담보이다. 이처럼 전력과 석탄, 철도운수부문의 호상의 존하는 조건에서 서로 밀접한 련계를 맺고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지퍼올려야 원료, 연료, 동력, 수송에 대한 인민경제적요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대고조전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다.

◇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진을 함께 책임지고 다같이 비약하는 관점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나라의 동력기지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선자적인 힘을 넣으려는 화력탄수송에 동원된 기관차, 화차들의 수리정비와 지관장부문의 철도인원선 관리 등을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석탄, 철도운수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한 수송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화차수리와 철길정비보수에 필요한 기공구 및 자재들을 마련하여 수송전사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생산자나 곧 수송이고 수송자가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기관차들의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집중수송행렬차들에 대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화차회거일수를 극력 줄이고 화차의 수리정비보수에 필요한 기공구 및 자재들을 마련하여 수송전사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생산자나 곧 수송이고 수송자가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기관차들의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집중수송행렬차들에 대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화차회거일수를 극력 줄이고 화차의 수리정비보수에 필요한 기공구 및 자재들을 마련하여 수송전사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생산자나 곧 수송이고 수송자가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기관차들의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집중수송행렬차들에 대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화차회거일수를 극력 줄이고 화차의 수리정비보수에 필요한 기공구 및 자재들을 마련하여 수송전사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서평양기관차대 《붉은기》6030호를 타고 위대한 련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어기는 2, 8동작정년련방의 지관장이다. 화차마다 석탄 한 자루 실은 서평양기관차대 《붉은기》6030호를 출발준비를 서두른다. **《보내실도 열림》** **《뒤 쫓음》**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책임기관사 리동환동무가 압력계를 주시하면서 운전조종기를 능숙하게 다룬다. 기관조는 인일남동무가 앞뒤를 긴장하게 살피며 조작단추들을 누른다. 힘찬 기적소리를 울리며 직동역을 떠난 석탄집중수송행렬차가 승천지구를 누리며 기세 좋게 내달린다. 경사가 급한 철도고개의 내리막길에 이르면 기관차는 점차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 **《내리막 주의》** **《내리막 주의》** 책임기관사와 기관조사가 맞부르는 짙막한 구령에 우리 의 마음도 바짝 긴장해진다. 마침내— 세동변을 움직일 때마다 기관차의 동체가 떨린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한 순간이다. 그러나 속력은 쉰서로 맞았다. 그 철도를 꼭 잡고있어 이렇게 승무원들에 의해 기관차는 일정

한 속도를 유지하며 내리막구간을 곧바로 통과해간다. 고분기관사인 리구룡동무가 승무원들을 미더게 바라보며 준엄한 전위의 나날 불비속을 헤쳐 전진수송을 보장하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석탄집중수송행렬차는 순환역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를 점검하고 또다시 출발한다. 평정역을 기세 좋게 통과한 기관차는 련이여 배산적역과 동북리역사이의 제일 어려운 울리막구간에 들어선다. **《울리막 주의》** **《울리막 주의》** 또다시 좁고 힘있는 목소리가 오간다. 모래분사변과 제여기를 두손으로 대며 역측스럽게 들어서는 책임기관사, 앞뒤를 주의깊게 살피며 수시로 나타나는 긴장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는 기관조사... 기세 좋게 련이여 여러 역을 통과한 기관차는 어느덧 수직의 동력기지를 가까이한다. 전력증산의 거센 숨결이 양된 역기가 문개 문개 되어오는 화력발전소의 굴뚝이 눈앞에 안겨온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언제나 전속으로 내달리려는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열의와 심장의 맥박의 분출인듯 기적소리가 수도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 퍼진다. **봉 - 봉 - 봉 -**

은을 내는 협동작전 남도송배전부에서 실태와 송배전설비들의 상태를 손꼽보듯이 장악하였다. 여기서 장악조성과 단위별전력소비정황까지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도송배전부에서는 석탄공업부문의 힘을 합쳐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들과 협동하여 탄광으로 벨은 송전선들의 기술상태를 세밀히 측정하고 불량개소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퇴치하고있다. 탄광들의 크고작은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들도 송전선들과 마찬가지로 선 심정으로 수리정비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전부하와 갱내부하를 걸라주고 교차생산조직을 보다 짜고들면서 과대부하의 전력설비들을 알맞은것으로 교체하여 전기적압박을 찾아내고있다. 전력개방에 대한 수리정비의 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앞선 기술혁신단들을 받아들이는 추경에는 더욱 긍정적으로 대응하고있다.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니 일에서도 성수가 갔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긴밀한 련계를 맺어가는 나날이 확대되어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는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도송배전부에서는 철도운수부문과 련동하여 증산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투쟁에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누구나 승리가 될 결의에 넘쳐있는 열의대원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황해남도려단 신원군대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4일 영국레이버당 출신 전 수상인 판발실장이었던 조나란 포틀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바르셀로나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스위스의 부통령 겸 국무비서였던 프랑크 폰 다니켄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 판발실장, 프랑스의 전 수상인 프랑수아 미테랑, 도이쉴란드사회민주당출신 련방수상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프랑스 총리 앙투안 콜레트, 프랑스의 전 총리 프랑수아 미테랑 등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마이스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신의주마이스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마이스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위대한 련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행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난해에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과학기술선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마이스생산에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 공장, 소조원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있다. 소조원들이 신축, 소조원 조광범동무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보이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인데 이어 컴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로의 수명을 높이고 유리병생산을 보다 과학화하여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소조원 김현, 신광희 동무들은 서로의 창조적능력을 함양해 1년 남짓한 기간에 마이스가무로자동공정에서 자동조종체를 받아들인데 이어 계속해 발전기를 제작 도입하여 보다 문명적인 로동환경을 보장하고 생산능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틀만이다. 최철호동무를 비롯한 소조원

철도일이 자 우리 일

북강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력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는 동시에 철도를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됨에 이곳 일군들은 철도운수부문에 혁신이 일어나야 화력탄수송에 대한 원만히 풀리고 전력생산과도 조립없이 수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철도지원사업을 일관하게 벌여오고있다. 지역 경제발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을 위하여 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영국레이버당출신 전 수상인 판발실장이었던 조나란 포틀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로동당과 유럽의 여러 정당사이의 친선과 협력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새 기술의 개척자 된 영예안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평양공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돌아다니며 기초적인 강령이론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설비제작을 맡아나갔다. 지베리 김창일, 기사장 리상배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내세워 주면서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적극 밀어주고있다. 초급당비서 김현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혁신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소조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고무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만만치 않은 고강도 작업량에 불굴의 의욕을 불태우며 공정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과 마음을 합쳐 설비현대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특고기자 송창윤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평천구역 봉남동 80인민반 조윤희동무

얼마전 일요일 아침이었다. 평천구역 봉남동 80인민반에서 사는 조윤희동무의 집에서 어머니 오봉도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갔었다. **《그렇지 않구, 전전주에 지방출장으로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더니 댁에서 오셨을 때 보고싶구다.》** 얼굴에 웃음을 담은 조윤희동무가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에서 공부하는 막내아들 평광성동무가 나직이 하는 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다.》** 이날도 조윤희, 리광희동무를 비롯한 평양시인민위원회 아예 단원 일군들과 증원원들은 증추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루 빨리 완쾌되도록 매일 같이 찾아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리광희동무는 료양을 가게 되었다. 가정을 이룬지 몇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영예군인의 마음속아픔을 헤아린 조윤희동무와 증원원들은 이때에도 적극 도와나갔다. 한두해도 아니고 여러해동안 친어머니와 같은 다정한 사랑

독자의 권지

형명적동지여와 의리로 아름다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미덕은 무수하지만 저가 직접 체험한 감동깊은 사연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전 남포혁명학원에서 공부하던 저의 아들은 당의 은정으로 주제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험기간 우리 아들이 뜻밖에 도도까지 학용품과 생활용품, 식료품을 가슴안가득 받아안게

고마운 제 도

필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성심성의로 돌봐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일군들과 생명과학부 조광범위원의 일군들이 저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고구를 일깨우며 친형육의 정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때는 그만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껏 유자녀를 그 누구보다 더 아끼고 내세워주며 온갖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의 고마움에 늘 가슴적이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는 또 이렇게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에게서 살뜰한 정을 받아안고보니 회복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가 제일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생의 순간을 갖고있 빛나게 살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렵니다. 서성규영 정경1동 45인민반 박해란

영예안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평양공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돌아다니며 기초적인 강령이론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설비제작을 맡아나갔다. 지베리 김창일, 기사장 리상배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내세워 주면서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적극 밀어주고있다. 초급당비서 김현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혁신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소조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고무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만만치 않은 고강도 작업량에 불굴의 의욕을 불태우며 공정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과 마음을 합쳐 설비현대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특고기자 송창윤

조윤희동무

으로 료양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루 빨리 완쾌되도록 매일 같이 찾아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리광희동무는 료양을 가게 되었다. 가정을 이룬지 몇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영예군인의 마음속아픔을 헤아린 조윤희동무와 증원원들은 이때에도 적극 도와나갔다. 한두해도 아니고 여러해동안 친어머니와 같은 다정한 사랑

강력한 자위적힘은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

강력한 자위적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은 자주적민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를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 강력한 자위적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이다. 복잡다단한 핵국제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은 이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미국은 힘을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군사력행사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만류하게 침해하고 무참히 짓밟고있다. 국제법과 정의,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미호전세력들은 힘이 곧 정의이라는 강도적인 침략관리에 기초하여 세계도처에서 군사적강권을 마구 휘둘러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선의를 바라거나 그들이 굴복하고 타협하여 자주권을 유지하려 한 것은 스스로 울거미에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이다.

자위적국방력강화는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전쟁세력과 평화력행사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의 가장 위대한 수단은 자위적군사력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페르소나》, 《영화보장》의 미명하에 전략적억제력과 주요자원지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그것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제기말살하기 위한 전쟁준비행동의 일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새로운 대항살륙무기개발과 전쟁도발에 팔

분한다. 그러므로 평화호적인 나라들은 그에 대처하여 군사적힘을 강화하여야 한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자기의 힘을 키우지 않고있다. 국가 식민지노예가 되어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친 나라와 민족들의 비극적운명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다.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강한 힘을 가질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행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집어먹게 되고 그들의 무력침공에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짓밟히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앞잡아보고 거리낌없이 위협공갈하며 침략의 군화발로 짓밟는 조건에서 군사력강화는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정치적독립도 경제적자립도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보장되고 담보된다.

사적일만 나라들은 독립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얼굴만 살피면서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고있다. 어떤 나라들은 경제발전에만 치중하고 자위적국방업에는 힘을 넣지 않아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

자위적국방력 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권수호의 든든한 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망국의 길사력에서 세계(희망)을 자랑하고있다. 조선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중조외관관계 설정 6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평양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에 굴복한다면 차폐될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적종만이다.

이라크시대를 보자. 페르시아전쟁이후 이라크지도부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은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하겠는가 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 무기사찰단을 자기 나라에 들여놓고 국가주권의 상징인 대통령궁전까지도 내맡기는 어리석은것을 하였다. 후시나 전쟁을 피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안고 미국의 요구대로 자기들이 생산한 미사일까지 파파하였다. 대항살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열림수에 속아넘어간것이다. 허나 미국은 이라크도 평화를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무력침공으로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았다.

국방력의 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최대 중대사이다.

이부터 훌륭한 사상과 정의로운 위업이라 해도 그를 안배할만한 힘이 없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수 없다. 힘 이 약하면 어쩔수없이 제국주의세력에 밀려나가 자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당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강한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정책을 짓눌러버릴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와 교전관계에 있는 미국은 군사력에서 세계(희망)을 자랑하고있다. 조선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중조외관관계 설정 6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평양

도발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침략적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려는 야망으로부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증강하면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있다. 미국이 세계의 다른 일부 지역들에서는 무력축감조치를 취하면서 도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배치하는것은 바로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도발행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정세가 가장 긴장한 지역으로, 임의의 시각에 대규모의 전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첨예한 열전지역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본토와 해외거지의 핵전략타격수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범함으로 정세를 핵전쟁의 문어구에 몰아넣고있다. 지금도 같다.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지만 감히 이 땅에서 침략의 불을 지르지는 못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가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을 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전쟁억제력은 우리 민족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이 나날이 로발되는 속에서 국방력강화를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온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강한 군사력이 없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리 현 도

에서 조선의 예술인들과 함께 설명철학공민운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감정을 더욱 두터이 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

김일성기무단의 전체 성원들은 이것을 궁지로 여기고있다. 김일성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학생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예술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친근하고도 정이 넘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될것이다.

진보적인류의 대항쟁이 현대정치의 정화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화전시회장과 운실들을 수만명 참관, 격정도로

평양성정에 즈음하여 중국 심양, 대련, 로씨야 나호프카, 몽골 울란바타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네 코나크리에 김정일화전시회와 운실참관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세계 5대륙에서 경축행사가 광범하게 진행된 지난 2월 7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수만명의 진보적인민들이 불멸의 꽃들로 활황을 이룬 전성시화들과 운실들을 찾아 청송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로성민전기업가협회 주임은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절세위인에 대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도

와 칭송의 마음에 떠받들려 태어난 불멸의 꽃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훌륭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했다.

중국공산당 로녕성위원회 선전부 대외문화교류담당 부주임인 상양금강개화공화국공사 총경리는 김정일화의 황홀함과 우아함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중국인민과 전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깊이 간직되심을, 김정일화

중국은 물론 온 세계에 더욱 만발하기 바란다

였다. 내련 영기화목유한공사 리사장은 평양성정을 맞으며 김정일화전시회를 주회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중조친선을

미련하고 꽃피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꽃들을 제배하는것은 우리 공사뿐 아니라 대련시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우리는 앞으로 김정일화를 더욱 아름답게 피워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각동원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련영기화목유한공사 총경리는 김정일화의 절세위인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호도의 정이 깃들어있는 꽃이라고 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보급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나호프카시 1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나호프카에서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조친선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들리셨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여러 차례 로씨야를 방문하시었다.

그이의 발자취는 연해변강에도 새겨져있다. 이것은 연해변 강 특히 나호프카시민들에게 있어 영광으로 된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배두산현회 지도리사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선진정치로 조건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빛내이신 위대한분이다.

김정일화는 절세 위인의 담대한 기상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훌륭한 꽃이다. 우리는 김정일화보급을 통하여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문화공원리사화리 리사는 평양성정에 즈음하여 김정일화전시회를 운실을 찾으니 조선반도의 나날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꽃잔치에 태양의 꽃이 가득차고 위인칭송의 꽃다발을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모습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오늘 조선은 김정원수각하의 명도말에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조선인민이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정일화전시회회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인류자위업의 확고한 지도적지휘를 마땅히 해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절세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호도심의 정화

이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원은각하께서 계시어 인류자위업은 기어이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의 친근한 모습은 소중히 간직될 것이다

중국 길림성기무단 단장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서 중국 길림성기무단 단장은 방문기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난 시기 김정일주석께서 탄생하신 수순을 고향집에 대한 아가미를 많이 들었다. 조선에 와서 직접 보니 그이의 절세의 위인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린시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사립문을 나서시었다고 한다. 이것은 위인만이 내릴수 있는 결단이다. 하기에 주석께서는 항일의 피

어린 혈전관리를 해치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주변환경이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아도 조선인민이 김정일주석을 어떤 자애와 감정으로 받들어모시고 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정말 열도자를 받드는 조선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그는 조선에 처음으로 오지만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번이 평양의 거리들과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모든것이 상상했던것보다 몇배나 더 훌륭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국가적혜택에 의해 슬비하게 일떠선 고층살림집들이 평범한 노동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생활하고있는것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조선에 동지끼리 조

신인민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것인가를 절감하였다. 그이께서 건강하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인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미래에 대한 확판정, 정신력은 진보적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 우리는 중조외관관계 설정 6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평양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살림집 개건, 산림 조성 사업

중국의 하남성에서 살림집개건사업에 힘을 냈고있다. 사업에서는 지난해 12만세대의 빈곤한 가정들의 살림집을 개건하였다. 앞으로 4년동안에 116만세대의 살림집을 개건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에서 지난해 104만 4000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였다. 자치구에서는 올해에 또 100만무이상의 산림을 조성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재생에너지를 개발노력 재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월남뉴

스》는 에네르기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맞게 과학자들이

전력문제해결노력 르란드에서 2018년까지 나라의 전력생산능력을 56만 3000KW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전기의 혜택을 입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기문제해

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태양발전소건설계획 가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월 28일 정부는 나라의 서부지역에 15만 5000KW의 능력을 가진 태양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되는 발전소건설에 많은 자금이 할당되게 된다고 한다. 여러 나라들 협조 알제리와 월남이 2월 2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개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2차회의가 3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순경정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관들이 개막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2차회의 의정이 심의 채택되었다. 유정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회의에서 사업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해 승군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평도말에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두가지 주제를 견지하면서 정치협상과 민주주의감독, 참정외정의 직능을 전지적합 리행함으로써 사상리론적질서와 사업작용에서 새로운

성과와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2014년은 제12차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인 해로 된다고 언급하고 그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총적목표를 확고히 틀어쥐고 그 정신을 지능 리행의 모든 측면과 전과정에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마약투쟁 필리핀경찰과 반마약당국이 2월 21일 다바오에서 공동으로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많은 양의 마약과 여러정의 무기들이 압수되었다. 또한 33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한다.

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2월 25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원유, 석유 등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공급제품수출을 늘일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경제를 발전시킬것이며 실업을 없애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카고시에서는 올해 1월에 살림집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감소되었다.

유럽나라들에서 사기협약행위가 성행하고있다. 2월 25일 유럽중앙은행이 발

표현에 의한

2012년에 각종 은행카드를 리용한 사기협약행위가 2011년에 비해 14.8% 더 늘어났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13억 300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계속 격화되고있다. 2월 28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에 실업자수가 약 33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실업률은 1977년 이래 가장 높은 12.9%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

반마약투쟁

필리핀경찰과 반마약당국이 2월 21일 다바오에서 공동으로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많은 양의 마약과 여러정의 무기들이 압수되었다.

또한 33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한다.

미국의 《종교인사》 환대로 표면화되는 증미모순

지난 2월 21일 백악관에서 1시간간도의 비공개회담이 있었다. 회담락을 마추한것은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그의 초초에 의해 이 나라로 날아는 달라이라마였다.

이들의 접촉을 놓고 중국이 몹시 불쾌해하고있다. 사례는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의 심화로 번져가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달라이라마를 그 부서 《종교인사》로 초청한 것부터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격분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인 못마땅하게 여기는 달라이라마로 말하면 지난 시기 중국분별책동을 벌리다가 쫓겨난 티베트분립주의세력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중국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티베트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고있다. 오늘날 그는 티베트인들을 《독립》으로 부르기면서 어떻게 해서나 분별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려 하고있다.

바로 이런 달라이라마를 《노벨평화상수상자》로 둔갑시켜 티베트인들의 《지도자》로 내세우는 장본인이 미국이다.

력대로 달라이라마는 미국의 직접적인 묵인, 조종하에 티베트에서 분립주의책동을 벌려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나라내는 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1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 아이일먼드의 경제산업체인 씨아이에이위회사가 2월 25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기업체에서 리유인이 전체보다 10%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카고시에서는 올해 1월에 살림집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감소되었다. - 유럽나라들에서 사기협약행위가 성행하고있다. 2월 25일 유럽중앙은행이 발

표현에 의한

2012년에 각종 은행카드를 리용한 사기협약행위가 2011년에 비해 14.8% 더 늘어났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13억 300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계속 격화되고있다. 2월 28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에 실업자수가 약 33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실업률은 1977년 이래 가장 높은 12.9%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어린이야문제

소말리아에서 분쟁 등의 후과로 인한 어린이들의 기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2월 25일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라에서는 현재 5만명의 어린이들이 당장 굶어죽을 형편에 있다고 한다.

밀집행위 우심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서유럽령행위 우심해지고있다. 2월 28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6마리의 서구 밀렵자들에게 의해 죽었다.

특히 크루가쿠림공원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한다.

물 부족 현상

북아프리카나라들에서 물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2050년에 가서 깨끗한 물의 양이 50% 줄어들것이라 한다. 2월 20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류독감 발생

월남의 남부 여러 지역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최근 정부는 2만 3819마리의 가금인 조류독감에 걸린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일부구부매를 조지하여 병발생지역들에 파견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어린이야문제

소말리아에서 분쟁 등의 후과로 인한 어린이들의 기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2월 25일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라에서는 현재 5만명의 어린이들이 당장 굶어죽을 형편에 있다고 한다.

밀집행위 우심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서유럽령행위 우심해지고있다. 2월 28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6마리의 서구 밀렵자들에게 의해 죽었다.

특히 크루가쿠림공원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한다.

물 부족 현상

북아프리카나라들에서 물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2050년에 가서 깨끗한 물의 양이 50% 줄어들것이라 한다. 2월 20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류독감 발생

월남의 남부 여러 지역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최근 정부는 2만 3819마리의 가금인 조류독감에 걸린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일부구부매를 조지하여 병발생지역들에 파견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